

## 승산선사 열반 10주기 세계 제자들 한자리

18~19일 한국서 세계일화대회 개최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으며 한국을 세계에 전했던 승산행원 선사(1927~2004·사진)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해 전 세계 불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마련됐다. 국제 관음승가와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봉스님)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충남 공주에서 ‘제10회 세계일화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덕사와 화계사가 후원한다.



‘젊은 층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국제회의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참선수행과 직업’ 워크숍  
경험담 공유...실참 시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세세생생 보살도’(다음생, 그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생애)를 실현하는 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세계일화 대회는 1987년 수덕사에서 처음 열린 이후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3년에 한 번씩 개최돼 왔다. 승산 선사가 ‘세계는 한 송이 꽃’(The Whole World is a Single Flower)임을 표방하며 창시한 세계일화대회는 세계 도처에 있는 불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직접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10회째인 세계일화대회는 승산 선사 열반 10주기와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세계일화대회는 미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300여 명이 동참한다. 본 대회는 오는 18일부터 오전10시부터 19일 저녁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며 ‘참선수행과 직업’, ‘젊은 층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린다. 대회 기간에는 승산행원 선사 회고전과 한국 전통 사찰 전시회가 열린다. 또한 20일 오전10시에는 계룡산 무상사에서 ‘승산행원대선사 10주기 추모대례’가 거행된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부터는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참선수행과 직업’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관음선원 스님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 수행자들이 참선에 대한 경험담과 실제 수행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대회와 워크숍에는 덕승

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을 비롯해 국제선원 무상사 조실 겸 주지 대봉스님, 리처드 슈로브(뉴욕 공인 심리요법가), 신성림(미국 하버드대 학생 심리상담사), 크리스탈 고(런던대 신경과학 박사), 벤자민 버틀러(금융인, 홍익대학 자문), 잔 세즈미르(환경기후문제 연구자) 등이 연사와 발표자로 나온다. 대회관련 내용 열람과 신청은 블로그(http://www.2014korea.wordpress.com)에서 할 수 있다.

무상사 주지 대봉스님은 “세계일화대회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이며 참선수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참선수행이 어떻게 직업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또 실지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각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승산스님 외국인 제자들 4명  
여태동 기자 toyeo@bulgyo.com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지난 9월25일 ‘봉은사와 추사 김정희’ 특별전이 시작됐다. 불교중앙박물관과 봉은사가 함께 마련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33세에 쓴 ‘해인사 대적광전 중전 상량문’을 비롯해 보물 3건과 지방문화재 5건 등 총 77건, 124점이 전시된다. 전시회는 오는 12월12일까지 (본지 3043호 참조).

## ‘세계평화 국민통합 기원대회’ 열린다

중단 주최, 내년 10월8일  
서울 광화문일원서 개최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35차 회의서 동참 ‘결의’

종교간 화합과 통합을 통해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조계종을 주최로 하는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로 2015년 10월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서울 광화문 일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참나를 찾아,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에 기여하자’는 주제로 개최되는 기원대회는 전통 간화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기원대회는 △세계 종교인이 참석하는 대규모 야단법석인 ‘세계 무차선대법회’ △한반도 통합을 주제로 국민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기원법회’ △다문화가족과 고려인 등 사회적 약자 초청 ‘전통문화행사’ △불교사와 동도사 등 ‘전통문화순례’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무차선법회는 야단법석과 함께 세계 불교국가 고승들이 불자 수계식을 진행하게 된다. 평화기원법회에서는 유대교 이슬람교 가톨릭 등 세계종

교대표들이 공동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일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호주, 인도 등 15개국 종교대표 30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국내외 사부대중 100만 여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원대회를 앞두고 전국 교구본사도 성공회를 다짐했다. 본사 주지 등 스님들은 지난 9월26일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알리고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원대회 홍보에 적극 동참한다”며 “모든 행사에 신도의 참여를 지원하고 세계에서 방문하는 종교지도자의 한국사찰 방문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스님, 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는 팔공총림 동화사 설법전에서 제3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총무원 집행부가 법안관리법과 관련해 법안 등록 현황을 보고하는 등 중단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단 집행부는 △11월17일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개최 등 일정을 공유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36차 회의는 오는 11월25일 오후3시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화사=허정철 기자 hjp@bulgyo.com

## 대각회 등 주요 법인들 대부분 중단 등록

총무원, 9월26일 현재  
30일 1차 마감 앞두고  
‘법인관리법’ 따른 등록 순조

본원 146개 대각회 등  
법인 4곳 절차 마무리

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1차 마감시한(9월30일)을 나흘 앞두고 재단법인 대각회 등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의 중단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9월26일 “다음 주까지 등록해야 하는 법인은 모두 16곳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까지 4곳을 등록을 마쳤고, 4곳이 빠른 시일 내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총무원에 따르면 본원 146개를 보유한 대각법인인 대각회(이사장 도업스님)를 비롯해 성문불교문화재단(이사장 용타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스님), 안국선원(이사장 수불스님) 등 4곳이다. 또 다른 법인 4곳도 중단 등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중단과 대립하고 있는 선학원을 제외한 법인 대부분이 마감일까지 모든 절차

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찰법인과 사찰보유법인 대부분이 중단 등록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해운은 만큼 1차 등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선학원의 경우에도 현재 소속 본원을 방문해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p@bulgyo.com

남해 염불암

‘건학 108돌 동국대 비전’ 김희옥 총장에게 듣는다 7면

### 108! 그 뜻 깊은 불심(佛心)을 모아 동국의 ‘새 미래’를 세웁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을 향한 동국의 새 비전이 펼쳐집니다. 108년 역사의 큰 뜻을 담은 첨단 랜드마크가 됩니다. 2천만 불자와 25만 동문의 자부심이 될 인재불사(人才佛事)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동국대학교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불사 선포 및 후원의 밤**

- 일시 : 2014년 10월 8일(수) 저녁 7시
- 장소 : 그랜드 엠베서더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중구)
- 행사문의 : 02-2260-3794~5

**dongguk UNIVERSITY**

**건학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 기부 참여 방법 안내**

- 약정 방법 : FAX / E-mail / 전화 / 방문 약정 후 입금해 주십시오.
- 입금방법 :
  - 무통장 입금 / 자동이체 (CMS) / 급여공제 중 선택
  - 신한은행 140-000-649193 (계좌주 : 동국대학교)
  - 국민은행 9-9999-3333-49 (계좌주 : 동국대학교)
- 대외협력본부 연락처 :
  - 전화 02-2260-8992-4 / FAX 02-2260-3796 / E-mail lovedgu@dongguk.edu

건학 108주년  
변화와 혁신의 동국대학교